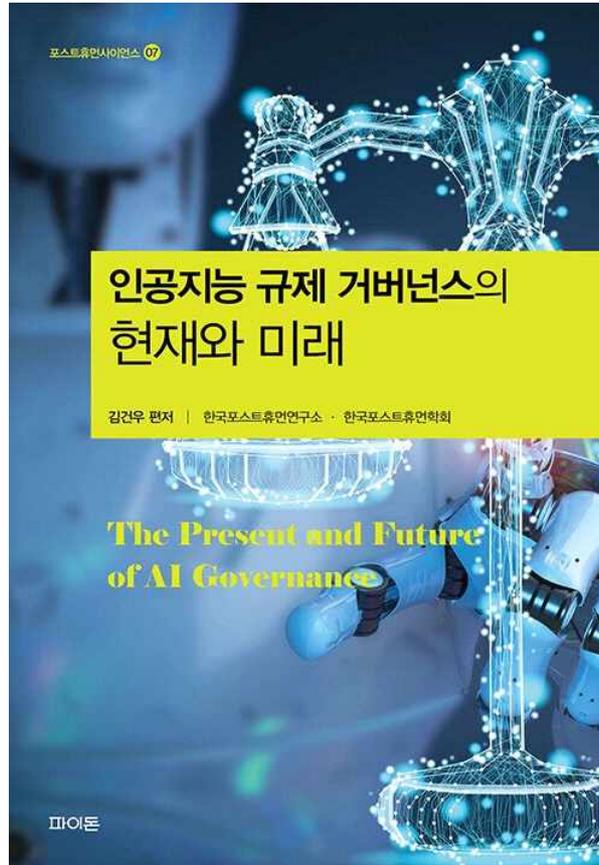


김건우 교수 편저, <인공지능 규제 거버넌스의 현재와 미래> 출간

-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인공지능 규제하나... 다각도로 해법을 찾아 나가



▲ <인공지능 규제 거버넌스의 현재와 미래> 표지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직무대행 박래길) 기초교육학부 김건우 교수가 엮은 <인공지능 규제 거버넌스의 현재와 미래>가 출간됐다.

이 책은 윤리적 관점과 법적 관점에서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해 '누가, 무엇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일반적, 총론적 차원의 논의를 다루면서 인간과 인공지능의 바람직한 공존의 길을 제시한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과 사회, 그리고 제도를 세 축으로 하는 좌표공간에 현재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고, 향후 어디로 옮겨가야 할까를 고민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 책의 모든 저자들은 바로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각자의 문제의식과 진단, 그리고 해법을 내놓는다.

김건우 교수는 "거버넌스란 정치사회적 수단으로 현실에 관여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형성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틀"이라며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어 탄력적이면서도 융합적인 관점에서 거버넌스를 형성하는데 이 책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해 서울대학교 과학사및과학철학협동과정 대학원에서 과학철학으로 석사 학위를,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법철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지스트 기초교육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특히 법철학의 다양한 측면에서 법의 토대를 검토하고 첨단 기술을 둘러싼 윤리적, 법적, 사회적 문제를 탐색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 최근 이 두 분야를 종합해 인간, 사회, 자연의 구분을 넘어서는 총체적 관점에서 규범학 일반의 탈근대적 토대를 모색하는 연구 기획에 주력하고 있다.

관련 주제로 다수의 논문을 썼으며, 역서로 프레더릭 샤휌, 『법률가처럼 사고하는 법』이 있다.